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김홍식
편집인: 김관성
쇄행인: 김성회
발행처: 안동김씨대중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12-49
우. 130-875
홈페이지: andongkim.net

창간일: 서기 1983년 9월 26일
구독신청: (02) 2244-3717, 2217-3717
FAX: (02) 2243-1073
E-mail: andongkim9@korea.com

백범김구선생 56주기추모식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56주기 추모식. 신용하 백범학술원장(왼쪽)등이 헌화하고 있다.

白凡金九先生 祭 56주 태인 명예회장, 대종회
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용산구 효창원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백범기념사업회(회장 김신)수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김원기 국회의장, 국가보훈처장 김국주, 관북회장, 유가족등 각계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각계인사 400여명이 참석

翼元公派典籤公后忠愍公告由祭



지난 6월 24일 승민공 諱欽(휘 흠)종회에서는 충남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에 위치한 승민공 재실에서 諱潔(휘 결)선조님을 참배하고 승민공 묘소에서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公은 尙山縣監行渭州牧使로 재임중 壬亂을 당하여 왕명을 받고 軍資監正監軍의 직책을 맡아 싸우시다 抗

節殉國하시었다. 이날이 6월 6일이다. 享年 56세 贈兵曹判書, 이날 고유제에는 대종회 용식회상 명회부회장, 인천광역시 춘교회장, 안사연 상석 종친을 비롯하여 재관종 회장, 재대총무, 참묵, 봉묵, 윤환, 재식, 수희, 경수, 수희 부부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재관 회장은 1993년 재

실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쾌척하였고 금년에도 종포매입에 1420만원을 내시어 선조위신사업에 큰공헌을 하였다.

행사를 마치고 인근 상도리에 사는 재택 종친대에서 석식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다음날 귀경하였다.
「기사제공 승민공종회」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찬조금 (2005. 6.1-8.31)

10만원: (典) 근성
5만원: (開) 창식 상국 (提) 용규 (按) 태봉 태황 (翼) 계성
계: 400,000원

◎통상회비 (2005. 5.30-8.31)

50만원: 인천종친회
5만원: (郡)운용 (書)관호
3만원: (密)덕목 (典)선묵 (按)재관
(翼)용해 한묵 태준 태송 점봉 재복 윤희
(正)용수 재훈
2만원: (密)중회 (開)상위 (郡)태웅 (典)수영 (文)재문
(副)수일 (郡)창신 영복 (提)명식 남응 상필 상운
태웅 태하 태수 재응
(按)선진 태성 재우 재하
(翼)호식 용호 노수 수석 문춘 수기 두철 진수 윤한
기환 수인 재선 정준
(正)수성
1만원: (文)수섭 재희 (翼)영돈 용득
계: 1,680,000

제4회 여름캠프 성황리에 마쳐



〈연기군 전의면 화당리의 화당공 유허비에서〉

대중회에서는 지난 8. 3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남 연기, 홍성, 공주, 보령 등에서 제4회 여름캠프 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지난 2002년부터 연이어 3년간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연구회)에서 실시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대중회 주관, 안사연 후원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대중회장님을 비롯하여

하고 문중 주요 역사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송조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청소년들에게는 효의 중요성과 우리 고유 전통에 대한 긍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충남 지역의 전서공파와 부사공파 묘역 참배, 주요 역사 유적지 탐방, 백일장 및 예절연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는데 참석자들의 참가비

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 전서공파총회에서는 첫날 중식(약 60만원)을 제공해 주었고, 그 외 종친 여러분들의 성금 기탁이 있어 행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대중회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모든 종친들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였으며, 백일장 대회는 청소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데 김예진(제) 학생이 장원하였고, 청소년들에게는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 상급학교 진학시 유용하게 활용되게 하였다.

또한 1박 2일의 공식 행사를 마친 뒤 약 15명은 별도로 1박을 연장하여 대전해수욕장에서 숙박하며 보령시 성주면의 호국사를 방문하여 충무공(휘 時敏)과 충민공(휘 欽)의 위패에 참배하기도 하였다. 이 외 본 행사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 [andongkim.net]의 <대중회>란에서 볼 수 있다.

1. 일시 : 2005년 8월 3일 ~ 8월 4일(1박 2일)
2. 장소 : 충남 연기, 홍성, 공주, 보령 일대
3. 행사 일정 : 1) 8. 3일 : 충남 연기군 전의면의 전서공파 3위 묘역(휘 玖, 成, 枚, 休) 참배, 화당공 유허비와 국촌리 연기대 첩비 탐방, 공주 공산성 4위 불망비(휘 億, 齡, 梯, 甲, 時, 獻, 素) 탐방, 백일장 실시, 청양군 칠갑산까지 내 유원지 숙박, 예절의 기초 연수.
- 2) 8. 4일 : 칠갑산 장곡사 탐방, 충남 홍성군 은하면 부사공파묘역(휘 天, 順, 담, 大, 래, 현, 진, 홍, 운, 규, 백, 영) 참배, 해산, 일부 종친 별도로 대전해수욕장 이동, 숙박.
- 3) 8. 5일 : 보령시 성주면의 호국사 방문, 봉안된 충무공(휘 時敏), 충민공(휘 欽) 선조님 위패 참배, 최종 해산
4. 참석자(무순)

◆ 대중회-대중회장(홍식), 대중회고문(재택),



〈공주 공산성에서〉

부회장(영만-안렴사공파 총회장), 부회장(실경-대구종친회장), 부회장(준교-인천종친회장), 사무총장(관목)

◆ 현지 및 원거리 합동 참석 종친
 ☆ 전서공파-수회(전서공파 도유사) 외 10여명,
 ☆ 부사공파-재은(부, 전파 총회장), 회용(부사공파 종손) 2명

진회(밀), 태우(군), 태영(군), 광도(문), 영환(문, 1), 운만(문), 재만(문), 윤식(문), 정중(도, 1), 상석(제, 2), 함용(제, 3), 운기(제), 성희(안), 용주(안, 1), 용준(안, 1), 용환(안, 1), 은희(익), 완식(익)
 5. 성금 내용(무순): 전서공파총회(중식비-60만원), 문은공파총회(10만원), 대구종친회장(10만



〈상락공(휘 혼)의 충혼이 배어 있는 연기대첩비에서〉

대중회 재택(안)고문님과 영만 안렴사공파총회장님이, 멀리 대구에서는 실경 대구종친회장님(익)과 재만 대구청장년회장님(문) 외 4명이 참석하였으며, 오창 및 청주 등지에서는 선회종친님(문영공파총회 총무) 외 안렴사공파 종친 10여 명이, 충남 연기지역에서는 수회 도유사님의 전서공파 종친 1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모두 약 52명의 종친 여러분과 6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였다. 휴가철을 맞아 선조님들의 묘소를 참배

용으로 운영되었다.

대중회장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본 행사의 목적과 높은 가치성을 설명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 송조목표 정신을 더욱 드높이자'고 역설하셨다. 첫 방문지인 충남 연기군 전의면의 전서공파 묘역에 도착했을 땐 소나기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곧 날이 개어 그 외 모든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노란색 띠를 단 약 28대의 행사 차량이 도열하여 이동할 때는 가히 장관을 이루



〈홍성군 은하면의 부사공파 묘역에서〉

☆ 안렴사공파-오창·청주 일원의 태문(안렴사공파 부회장) 외 10여명
 ☆ 대구종친회-실경(익, 대구종친회장), 익(도, 대구종친회 사무국장) 외 4명

◆ 참가 종친 및 가족 : 총 18가족 28명(무순, 괄호 안은 동행가족수)

원), 인천종친회장(10만원), 대구청장년회장(10만원), 재은(부, 전파총회장-3만원), 익수(제, 30만원), 상석(제, 10만원), 완식(익, 5만원)

기사제공자 : 恒謙(提)

※ 향 전 원 에 ※

(경조화환/화분)

대표 김재균

전화 : 783-3166, 783-3167, 780-8477
 팩스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프린스텔 1층 12호)

안동 청년 유도회 주관으로 사촌마을 발표회가 열렸다.



지난 6월 18일 오후 3시 의성 사촌의 만취당에서 안동청년 유도회 주관으로 사촌마을과 만취당이란 제목의 발표회가 열렸다. 안동청년 유도회 李花案회장은 대한순환자원 협회 대구경북 지부장을 맡고 있는 지방 사업가로서 유교연원의 발상지 안동에서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안동시 명문가의 누대정사 탐방을 24회에 걸쳐, 시행하고 열세번이나 강좌를 개최함으로써 지방유림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인접시군 강

좌개회 1호로 사촌의 만취당을 탐방하였다. 안동청년 유도회와 안동문화회가 공동으로 '발행한 자료 '사촌마을과 만취당'은 49쪽의 분량으로 마을 유래, 세계, 학맥, 혼맥, 과환, 배출인물등을 소상하게 정리하여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동정보大學,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신 南勝斐氏가 발표하였다. 이어서 전 경상북도위원이며 안동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李東秀의 보충강의로 청중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당일 참여인원은 안동과 의성의 원로 유림 10

여명과 문중 어른들은 모두 정찬한 모시두루마기로 정장하여 옛날의 문치를 자아 냈으며 그의 경상북도 청년유도회 권석환 회장, 경북대학교 퇴계학 연구소 김우동 연구위원, 초암 서예원 송준강 원장, 국학진흥원 임노직 연구관을 비롯해서 안동, 대구, 김천 등지의 뜻있는 인사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 여성회원의 '태극도설', '숙흥야매잡'의 낭송이 있어 강좌의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였다.

문중에서는 정갈한 안주와 떡, 과일, 술, 음료수를 준비하였으며 삼차림도 분위기에 어울릴 정도로 예절을 중시하였다. 원래 한시간 정도로 예정하였는데 두시간이 초과하였으나 모두들 지루함 느낌없이 질서를 지켰다. 마지막에는 문중대표의 환송, 인사말로 글을 맺었다.

2005. 6. 28
(기사제공 항회(郡))

안동김씨 上洛청년회 (안동지역)소식



2005년 7월 16일(토) 오전 10시 안동시 남후면 소재 무룡유원지에서 上洛청년회(회장: 김태계) 주최로 안동시종친회, 안동시부녀회, 북부지역종친회, 청년회 회원 250여명이 참석하여 종친들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하계 친목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안동을 중심으로하는 경북북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종친들간의 친목행사로써 처음으로 있는 행사로써 청년회 임원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경북 의성 사촌, 안동시

와룡면 용두골, 남후면 개곡리, 풍산읍 소산리, 풍산읍 회곡동 등지에 살고 있는 종친 어르신을 지역마다 대령 관광차량으로 모시고 1부 식전행사와 공식 후에는 즐거운 여흥 시간을 갖고 상품 및 참가선물을 드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즐겁고 유익한 진정한 종친들간의 단결과 화합의 한마당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안동김씨 上洛청년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행사를 정기적으로 치를 예정으로 있다.

문온공파 직제학공(맹헌)계종회 창립총회



앞줄(좌로부터): 호길(평), 재국(음), 광섭(별), 광우(별), 도만(별), 태욱(도), 영환(사인공계)
뒷줄(좌로부터): 윤만(음), 오만(별), 재만(평), 영희(평), 호병(별), 관목(음), 광호(별), 재명(음), 유만(별), 효만(별), 영웅(도), 재관(음), 정복(평), 왕룡(별), 의만(별), 재만(평), 종성(평), 태만(도), 효일(평), 재원(평), 광도(별), 위만(별), 태운(도)

지난 7월 23일 11시, 서인 30여 종인대표들이 참초동에 있는 한정식집 장석한 가운데 '文溫公派直제학공(맹헌)계종회(문온공파직

제학공계종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회순에 따라 개회선언선조님들에 대한 묵념, 직제학공(孟獻 맹헌) 소개, 경과보고, 규약제정, 임원선출, 초대회장 인사말씀, 내빈축사, 참석자소개, 폐회선언에 이어 회식과 기념촬영 순으로 총회가 진행되었다.

초대회장으로 현 문온공파 회장인신 光宇(광우)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고 부회장으로 道萬(도만, 포천-別提公門中), 在克(재국, 음성-陰城公門中), 載萬(재만, 대구-萍堂公門

中), 英雄(영웅, 증평-都事公門中), 감사 孝萬(효만, 포), 元會(원회, 음), 총무 이사 旺龍(왕룡, 포)을 비롯하여 15분의 이사가 선출되었으며 5분이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文溫公派(문온공파)는 直提學公(직제학공, 孟獻 맹헌)계, 參議公(참의공, 仲舒 중서)계, 舍人公(사인공, 季友 계우)계 3개 계파로 구분되는데 그동안 말파인 직제학공계종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문온공파 현안인 金水壇(금수단) 및 가양리 묘역 명의 이전, 종가복원, 재실건립 등 종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이번에 창립총회를 가진 것으로 문온공파 모든 종

인들은 이를 기회로 모든 宗事(종사)가 원활하고도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직제학공계종회 창립총회의 또 다른 의의는 그동안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대구, 영천, 경산, 부산 등 영남 일원에 세거하고 있는 萍堂公(평당공) 문중이 이번 창립총회에 대거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음은 물론 혈육의 정을 돈독히 하였다.는 점이다. 차제에 江華(강화)에 세거하고 있다는 明允(명운, 문온공의 3子)계 후손들의 소재 파악과 교류 또한 주요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기사제공-載萬(文))

종친회 사칭 사기행각

종친회를 빙자해 5년 동안 7900명에게 싸구려 족자를 비싼값에 팔아 7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000씨 대종회라면

서 판매수익금은 장하사 업등 좋은일에 쓰겠다며 1~2만원 짜리 족자를 7~15만원씩에 팔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위해 종친회장

명의로 가짜인사장을 만들어 족자에 끼워 보내는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와는 별도로 경주 김씨 계보 연구회라는 곳에서 사실과 다른 姓氏계보도를 임의

종친회 사칭 7억원 갈취

로 작성하고 책을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보연구회는 경주김씨 중앙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또한, 대종회에 보관되어있는 新羅三

姓淵源譜에도 叔承할아버님을 澈承으로, 某姓氏의 始祖를 他姓氏로 기록되어 있는등 오류가 많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친들께서는 처음보는 門中史料를 接하실때 주의깊게 살펴서야 될줄로 사료됩니다.

提言

한국인의 성씨와 宗親會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86개의 姓氏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265개의 성씨가 기록된 것으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

한국인 성씨의 발생근원은 중국성씨제도의 영향을 받아 왕실이나 귀족층에서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시대에는 시조인 주몽이 나라를 건국하고 高氏를 자기 姓으로 하였고 백제시대에는 시조 온조가 부여계통에서 나왔다하여 扶餘氏로 하였으며 신라신대의 시조 혁거세는 표주박같은 커다란알에서 나왔다하여 차

氏로 하였고 신라김씨의 시조인 太輔公(諱 알지)은 신라시대 서기 65년 탈해왕 9년에 경주 始林 숲속의 금괴에서 태어나 시어 탈해왕께서는 하늘이 주신 아들이라고 금괴에서 나왔다하여 성씨를 金氏로 賜姓(사성)하였다. 특히 신라시대에는 3氏姓이 56王中 김씨 38왕 박씨 10왕 朴(석)氏 8왕을 지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후 삼국시대를 통일한 고려태조께서 개국공신과 지방호족들에게 姓을 하사함으로써 정착되어오다 과거제도 발달되는 고려 문종이후 보편화되었으며 조선말기에 개혁정치가 시행되면서 常民과 奴婢를 포함한 모두가 姓을 갖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기성씨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갖는 민족도 없

을 것이다. 상대방과 만나면 악수하고 통성명을 나누며 姓이 같으면 本貫(본관)을 묻고 본관이 같으면 行列(항렬)을 물어 그자리에서 촌수를 따지는 관례는 우리민족만의 고유문화이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425년 전인 1580년 조선시대부터 성씨가문에 대한 혈통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宗約所'란 명칭으로 종친회를 구성하고 족보를 발간하였다. 우리에게 흠뻑 흠뻑하신 선조님들의 빛난 얼을 선양보전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종친제현들께서는 명가의 후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종친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감히 提言하는 바입니다.

기사제공 인천광역시 종친회장 춘敦(典)

인천종친회 12대 임원 상견례를 겸한 단합대회 및 제 300차 월례회 개최

인천종친회(회장 춘교)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 소재 구룡도에서 제 12대 첫 임원회의겸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총회 명회부 회장, 성회 전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춘교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원들께서는 무월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서로화합하고 단결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종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요지의 인사말에 이어 모처럼만에 야외에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종친회 발전에 허심탄회하게 유익한 대화의 장을 가졌으며 비용일체를 춘교회장이 부담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저녁 7시 시내신포동소재 둔비어천가 음식점에서 종친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00차 월례회

의를 개최하였다. 춘교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천종친회가 1978년도에 창립되어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로써 꼭 300회를 맞는 뜻깊은 월례회의로 창립초창기부터 종친회에 참여하신 재은 고문님을 비롯한 역대회장님들 그리고 9년간 인천종친회장을 맡으셨던 홍식대총회장님 또한 모든 종친들께 오늘의 발전된 인천종친회가 있게끔 헌신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에 이어 시종화기애애한 가운데 뜻깊은 모임을 자축하였으며 상원(익) 전임 11대회장에게 재임중 공로로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였으며 종친전원에게 대공보를 배포하였다.

기사제공 인천종친회 총무이사 영식(典)

安東金氏都評議公派門規(序文省略)

서로 권장 할일

- 부모에게 효도 할 일
• 형제간에 화합할 일
• 어른과 노인을 공경할 일
• 서로간에 신의를 지키는 일
• 문친간에 화목할 일
• 이웃을 잘 사귀는 일
• 문중 의결에 잘따르는 일
• 문중의 役事에 부지런할 일
• 언행을 삼가할 일
• 일시의 분노를 잘 참는 일
• 남모르게 선행하는 일
• 위선사업에 거액을 헌납하는 일

이상의 실행이 뚜렷하거나 그외에도 특별한 선행이 있는자를 善籍에 기록 유지하였다가 유사시 門憲에 의해 포함한다.

서로 규제 할일

- 부모조상을 욕되게 하는 일
• 어른을 속이거나 헐뜯는 일
• 어른을 능멸히 여기는 일
• 家道를 어지럽히는 일
• 남을 시기하는 일
• 일가친척에게 패악하는 일
• 강자가 약자를 능멸히 여기는 일
• 의결된 門事에 불평하는 일
• 爲先부역에 성실하지 않는 일
• 언사가 저속하고 무도한 일
• 경위를 무시하고 송사를 일으키는 일
• 남모르게 악행하는 일
• 문중의 재물을 임의로 손상시키는 일

이상의 행실을 자주범하거나 그 외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악행을 자주범하여 기강을 어지럽힌자를 惡籍에 기록 유지하였다가 유사시에 門憲에 의해 징계한다.

부칙

- ① 이 門規는 1998년 무인 1월부터 시행한다.
② 이 門規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법과징계의 의결권을 갖는다.
(가) 운영위원회 구성
• 자동참여: 도평의공파회장 및 도유사
• 선출참여: 문중운영위원 9명(계11명)
(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3분의 2이상 참석과 참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도유사가 소집한다.

韓國唯一의 族譜出版 綜合工場



本社 社屋 全景

族譜 出版의 元祖 족보 문집

回想社 特徵

- 1. 創立 50年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 出版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 出版界의 元祖
2. 春田體(族譜書體) 47,163字 製造 開發로 모든 御字 完全解決(回想社 獨自 版權)
3. CD 族譜 製作 (既 發刊된 族譜도 CD 族譜 製作)
4. 인터넷 族譜 構築, 홈페이지 製作
5. 編輯, 淨書, 組版, 印刷, 製冊, 頒發등 모든 工程을 同一工場에서 一貫作業을 할수 있는 綜合工場.

便宜 提供

- 1. 門中에 收單, 淨書, 編輯, 校正등 場所를 本社 및 서울支社에서 無料로 提供
2. 族譜 刊行中 疑問點, 回想文譜院(族譜圖書館)을 利用, 閱覽하여 解決
3. 印刷된 用紙 貯藏 管理, 넓은工場과 1,000餘坪以上의 倉庫로 頒發完了때 까지 無料로 便宜提供.



族譜古書 出版製冊

回想社

본사 大田廣城市 東區 中洞 47-4
電話(042)253-9881 3 Fax(042)253-9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포동 350번지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 1412호
전화 (02) 718-9881 Fax (02) 718-9892